

전라감영 복원 '가속도'

전주시, '제3기 재창조위원회' 출범... 공간활용 계획·실감형 콘텐츠 제작 등 논의

올해 1단계 복원공사가 완료되는 전라감영을 구도심 핵심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활동할 '제3기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3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전라감영 복원 방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도 새로 구성했다.

또한, 제2기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 위원회에서 추진해온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공사 발주 및 착공 △공간 활용 계획 및 실감형 콘텐츠 제작 △추가 발굴조사 △상상식 △흔적남기기 △전라도 정도 천년행사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고 받고, 2019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제3기 위원회는 내삼문 및 비장청

행랑 건물 복원 형태와 복원될 공간의 조정사업을 비롯, 복원 건물 내 조성될 ICT 실감형 콘텐츠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추진할 주요 사업인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공사 △내삼문 및 흔적남기기 공사 △실감형 콘텐츠 제작 △전라감영 복원 공사 준공식 △다큐멘터리·종합보고서 제작 △감영 관련 유물 구입 등 현안 사업의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올해는 전라감영의 동편 건물이 준공이 되는 시점인 만큼,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계획 뿐만 아니라 향후 서편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올해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기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 위원회는 △김남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 △김은정 전북일보 콘텐츠기획실장 △김종만 시민행동21 공동대표 △김홍기 풍남문상인회장 △남해경 전북대 교수 △문은걸 예원예대 교수 △박행배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신상섭 우석대 교수 △엄형용 전북대 교수 △이남숙 중앙동통우회 회장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 △이명우 전북대 교수 △이문현 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이재운 전주대 교수 △조보종 우석대 교수 △홍성덕 전주대 교수 △홍승재 원광대 교수가 참여하며, 임기는 오는 2021년 1월 30일까지다.

/송효철 기자



‘한국의 겨울 왕국’ 1월의 마지막 날인 지난 31일 전주시 전역에 눈이 내리자 전주 한옥마을 처마에 눈이 가득 쌓여 겨울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한옥마을의 미래, 주민 스스로’... 비빔공동체 출범

전주한옥마을 거주민 모두를 아우르는 주민주도 조직체인 전주한옥마을 비빔공동체가 공식 출범했다.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원주민과 어진포럼·소상공인연합회·숙박협회·한복협회·원주민 민박공동체·건물주협의회·채움공예 등 업종별 7개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주한옥마을 비빔공동체가 31일 출범하고, 전주한옥마을을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지속가능한 여행지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

비빔공동체는 전주한옥마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해결과 주민화합행사를 주도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글로벌 여행지 조성을 위해 전주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동체는 한옥마을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홍보 및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원주민과 상인, 문화

시설근무자 등 지역민의 화합을 위한 추진하게 된다.

또, 생활주변의 공간을 활용한 텃밭 가꾸기와 썩지공원, 꽃동산 조성 등은 물론, 건전한 임대차문화 조성을 위한 동행문화 조성, 관련단체 간 협력활동 등도 추진한다.

앞서, 전주한옥마을 원주민과 어진포럼 등 7개 단체는 전주한옥마을 비빔공동체 구성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5차례 준비모임을 갖고 정관 및 한옥마을의 다양한 문제해결과 주민화합을 위한 핵심 사항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 또, 10차례 실무위원회를 통해 조직구성 및 추진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시는 향후 한옥마을 자치공동체인 전주한옥마을 비빔공동체 중심으로 △골목길 버스킹 및 담장 가꾸기 사업 △원주민 이야기 술사 △주민주도의 문화콘텐츠 사업 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동시에, △한옥마을 야간경관 조형 개선사업 △쌍샘우물 복원사업 △한벽문화관 야외공연장 건립 △공예품 전시관 전통정원 조성사업 △한옥마을 문화시설 특화 콘텐츠 발굴 등에 힘써 한옥마을 하루 더 프로젝트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

발기인 총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과거에도 한옥마을에 많은 조직이 있었지만, 서로의 입장만 주장해 화합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구성될 한옥마을 비빔공동체는 한옥마을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아내고, 편협되지 않은 하나의 목소리로 너와 내가 아닌 하나로 뭉쳐 진정한 한옥마을의 변명을 위한 수 있는 조직이 되고, 주민 스스로의 힘을 믿고 전주 한옥마을을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 지속가능한 세계적 전통문화 여행지로 만들기 위한 조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올해 새롭고 희망찬 향해 시작

전북문화관광재단 정기이사회

재단 출범 4년 차를 맞는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진, 이하 재단)이 1월 31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제11차 정기이사회를 하고 2019년의 새롭고 희망찬 향해를 시작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송하진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개의 보고안건과 1개의 심의안건 총 3개 안건을 상정, 심의·의결하였고 모두 원안 가결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사회를 통해 세 가지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의 쇄신을 당부했다.

첫째, 재단 초기에는 문화가 중심이 되고 그 바탕에 관광적 요소를 가미

하는 개념으로 재단이 출범하였으나 이제는 시대와 현실의 요구에 따라 재단 스스로가 정체성을 갖고 그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

둘째, 출범 4년 차에 접어들 문화관광재단이 인지도 및 존재 이유 그리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겠다고 판단하나 앞으로 도민과 예술인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더욱 노력 할 것. 마지막으로 송 지사가 늘 강조하는 '공심'을 언급하며 무조건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가치관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며 사업 추진 시 수혜자와 비수혜자 모두를 아우르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효철 기자

다.

보고안건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2030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다음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2019년 주요업무는 28개 사업으로 문화예술분야 15개 사업, 관광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술인 창작 활성화와 관광사업을 확대 2030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라 비전체계와 핵심기능을 재구축해 재단의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제시했다.

심의안건은 직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 채용계약서와 관련한 인사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항은 채용계약서 제10조(계약의 해지), 제13조(기타 채용조건) 및 제14조(해석)로 합당하지 않은 내용을 변경하고,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는 등의 개정사항이 모두 원안 가결되어 재단 직원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지난 31일 평화사회복지관에서 '두드림 옷장' 오픈식을 갖고 김승수 시장이 내부 모습을 둘러보고 있다.

“면접 의상 무료로 대여해줘요”

전주시 공유 옷장 '두드림 옷장' 오픈

면접을 앞둔 청년 취업 준비생들에게 면접 의상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전주시 공유 옷장 '두드림 옷장'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지난 31일 평화사회복지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장기 부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정장 공유옷장인 '두드림 옷장'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두드림 옷장'은 전주시사회혁신센터의 '2018사회혁신 리빙랩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본격적인 취업시즌인 2월 한 달 동안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면접에 필요한 정장을 무료 대여해주는 사업이다.

두드림 옷장에서는 재킷과 블라우스, 셔츠, 치마, 비지, 넥타이, 벨트, 구두 까지 면접 시 필요한 모든 것을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정장기부 전달식과 함께 김승수 전주시장이 청년들과 담소를 나누며 취업도전에 대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간담회도 진행됐다.

청년 취업준비생 한수경 씨(25, 평화동)는 "취업 준비생이라 재정적으로 많이 쪼들리는 상황에서, 수십만 원에 달하는 면접 정장을 준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다"며 "무료로 정장을 대여해주는 사업이 새로 생겼다는 소식이 너무 기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두드림 옷장의 정장대여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향후 사회생활과 구직의 멘토가 되어줄 인성 선배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주시 발전을 이끌 어갈 소중한 자산인 청년들의 건강과 교육,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장 대여를 원하는 취업준비생은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 홈페이지(www.welpeace.or.kr)에 접속해 원하는 날짜에 예약 신청을 한 후, 예약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두드림 옷장을 방문해 사이즈 측정과 수선 후 정장을 수령하면 된다. 대여 기간은 3박 4일이다.

/송효철 기자

검찰, '뇌물수수' 최규호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해 8년 2개월간 도피생활을 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과 형의 도피생활을 도운 형의(실정법 위반)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징역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3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은 고위공직자로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수사를 받던 중 도주, 8년 2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했다. 치밀하게 도주를 준비했으며, 도피생활도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로운 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9억원 및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최 전 사장에 대해서는 "형의 도피를 돕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사용한 점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복을 대표하는 고위 공직자, 사회지도층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전북교육계 수장으로서 일반 다른 공직자보다 훨씬 높은 도덕·정렴성을 가져야 함으로 도 거액의 돈을 받아 전복 도민과 전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해 최 전 교육감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피생활 내내 고통에 시달렸다. 또 황제 도피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최 전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뇌물수수는 무거운 죄를 짓게 된 것과 8년 동안 도피 생활 중에도 여러 가지 죄를 지어 가슴 깊이 누우치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어 "2015년 초 전립선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하려고 했지만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돼 죽음의 그림자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껴 지금의 교도소 생활보다 8년간의 생활이 더 지옥 같았다"며 "이제는 여생을 사랑하는 가족과 살고 싶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강석훈 기자

리프트 또 멈춰... 무주리조트, 구조요청 말려

리프트가 또 멈춰 탑승객 20여명이 40분간 추위와 공포에 떨었다.

지난 31일 무주대유산리조트 등은 지난 29일 오후 11시 51분경 스키장 리프트가 멈추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달에만 3번째 사고다. 한 이용객의 주장에 따르면 지상 10m높이의 리프트 케이블이 엉키면서 갑자기 멈춰 서 탑승객이 119에 구조요청을 하러 하자 리조트 측에서 말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리조트 측은 리프트가 30분 이상 멈출 경우에 한해서만 소방당국 등에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며 대처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무주리조트에서는 지난 5일 리프트가 멈춰 승객 34명이 1시간여 동안 공중에 고립됐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정비사가 스노모빌을 타고 슬로프를 정비하던 중 철재 와이어에 부딪혀 숨졌다.

/강석훈 기자

손석희, 설 연휴 이후 경찰조사 예정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설 연휴 이후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1일 "정확한 일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설 연휴 이후 손 대표를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조을 중"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의 경찰 출석 일정이 공개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10일 전직 기자 출신 김모씨(49)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집에서 폭행한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손 대표는 지난 24일 김씨가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했다며 그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마포서에 손대표의 고소 사건과 김씨의 폭행 사건과 병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손 대표를 경찰서로 불러 폭행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공갈미수 사건의 고소인 신분으로도 조사할 계획이다.

폭행 피해를 신고한 김씨에 대한 조사는 이메일과 우편 등을 통해 이뤄졌다.

/강석훈 기자

송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 명절 나눔 활동 전개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1일 송천2동 주민센터에 관내 독거 어르신 60명을 위한 설명절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것으로 채봉덕 위원장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독거어르신 60명에게 왕겨란 30구 54판과 부침가루1kg 60개, 양말셋트 등(50만원 상당) 물품을 전달하고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 했다.

채봉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르신들께서 2019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설명절을 맞이시길 기원하며 윤택하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익철 송천2동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드려며 새해에는 찾아가는 복지 전달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우리지역 복지서비스가 질적, 양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동네복지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무주서 주택 화재 80대 노인 부상

지난 30일 오후 8시 30분경 무주군 안성면에 있는 조립식 주택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에 살던 A모씨(84)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주택 대부분이 타 소방서 추산 2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시간여 만에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석훈 기자

시내버스 눈길에 미끄러져

지난 31일 오전 9시경 진안군 성수면의 한 도로에서 김모씨(56)가 몰던 시내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쳤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대실주의보가 내려진 진안에는 6.5cm의 눈이 쌓인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